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교리 제목 : 현재 기독교의 중요 교리 성경:호세아 6장1-11절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2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4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11 또한 유다어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6:1-11)

기독교교리란 기독교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학습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할수록 정확하고 지혜로운 기독교인이 된다.

뭐든지 기초에 충실한 것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교리가 매력있다고, 지식에 잠긴다든지, 말하는 도구나 유식함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말아야 한다.

진리가 변하지는 않지만,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고, 시대마다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강조되는 교리가 다르다.

또한, 만물은 하나님의 의도를 향하여 지향하면서 전진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교리도 전진한다. 그래서 현재 기독교의 중요 교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1. 영광의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이해(우상배격)

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남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영광이란 최고의 존귀, 최고의 권위,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식과 지혜, 최고의 선함, 최고의 사랑, 최고의 창조 그 자체되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표현하는 절대적인 단어이다.

-영광이란 단어와 어울리는 유일한 존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다.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그러므로 영원히 결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 영광을 흠모하고 숭배할 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조리 알아버리겠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알아가고 싶은 분임을 고백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모든 유혹이나 다른 하찮은 흥밋거리들에게 마음이나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말씀의 핵심이 이것이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

는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죄악과 방황과 심판의 연속에 빠져들 것이다.

-기독교 교리를 오늘 다 말씀 드리자도 못하지만, 원래가 계속해서 진행형 지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이 배웠지만, 아직도 여전히 더 배워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2. 생명과 성령과 성경(율법주의 타파)

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행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경을 주셨다.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그렇듯이 성경 또한 역사적인 산물이다 보니 섭취하는데 적잖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수많은 일꾼들이 성경을 위해서 헌신하였으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이 일 또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면 편리하다.

-특히 기독교는 성경을 잃어버리면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다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이 생명인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우상은 빛나기라도 하는데, 생명체는 생명을 잃는 순간 고약한 것이 된다.

-기독교는 우상을 이용하는 모든 다른 종교와는 근본부터 다르다.

-성경을 성령으로, 그래서 생명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며, 아무런 의미도 없다.

-오직 기독교만 생명과 영생을 선포하며, 성취하며, 누린다.

-다만,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들 가운데 생명력이 소멸되며 율법화가 진행된 부분들이 많으니 이들을 향한 배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성직(영적전쟁)

- 하나님의 보이는 계시의 도구로 성직을 사용하신다.
- 성경이 하드웨어라면, 성직은 소프트웨어다.
- 성경이 자동차라면 성직은 운전자다.
-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셨고, 계시하셨고, 위로하셨고, 치유하셨고, 경고하셨고, 심판하셨다.
- 또한 성직자는 영적전쟁의 사령관이다.
- 성직자는 신이 아니다. 그도 모든 사람과 똑같다.
- 그러나 그의 사역은 신비스럽다. 인격은 인간적이겠지만, 그의 사역은 신적이다.

4. 죄인으로서의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서의 교회

- 성령께서는 동서남북의 죄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은 7-11절 말씀)

7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동)

9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약을 행하였느니라 (서)

10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북)

11 또한 유다어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6:1-11) (남)

- 교회는 거룩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이다.
- 교회는 반드시 연합해야 하며, 온 세상 교회는 하나이다.
- 그러나 결코 획일화 되지 않을 것이며,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질

것이다.

5. 사명과 복음전파로서의 JPIC(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 정의 평화 창조세계의 보존)

-그동안의 교회는 영혼구령에 초점을 맞추었다. 교회와 학교, 병원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땅 끝이 단순히 지리적인 끝이 아니라,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모든 영역을 뜻한다.

-이제는 지리적 땅 끝이라는 이차원적 영역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영역에 대한 복음전파를 지향한다.

-정치와 일터와 대중문화(특히 예능)라는 다층적 영역에 대한 복음전파를 뜻한다.

-또한 창조세계의 보존이라는 명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행복한 삶과 관계되며 이슈화 됨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와 세계운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창조세계의 보전을 위한 기업활동, 정부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여전히 자연은 승배의 대상이나 방치나 관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그러기 위한 자연과학이 되도록 신학적인 기초를 다지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중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곧, 신학과 과학이 분리된 개별학문이 아니라, 서로 잘 융합된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교리 제목: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말씀:
골로새서 1장6-23절

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7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중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0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1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1:6-23)